

일본의 국사 (연구/교과서)에 서술되는 동아시아

미타니 히로시(三谷 博)

서언

1. 고교 교과서에 있어서의 세계와 동아시아

1) 『상설일본사 B』 야마카와 출판사, 2015 년

2) 그외 교과서: 도쿄서적,시미즈서원

2. 일본사의 연구동향

맺음말

서언

일본의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은 어느것이나 일본사와 외국사로 2분된다.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과 그리고 그외의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를 별개로 간주해 「일본은 세계 (아시아)의 밖에 있다」 고 하는 세계관이다.

필자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에서 이러한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최근 일본학술회의 사학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역사교육 속에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기초」 라는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제언을 참조하면서 다음 학습지도요령에 유사한 형태의

「역사종합」이라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현행 일본사교육이 일본의 외부 세계(*역주:원문「外界」) 특히 동아시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 주요 교과서를 소재로 분석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일본사연구와 교육의 이상형에 관해 생각해 본다.

1. 고교 교과서에 있어서의 세계와 동아시아

일본의 고교교육에서는 일본사와 세계사는 과목으로서 분리되어 있고 또한 이수자가 반드시 중복되지도 않는다. 현행 세계사는 제도상 필수이기 때문에 일본사 이수자는 세계사를 이미 배우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대학수험에 진력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에는 세계사를 안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또한 국립대학을 수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학센터시험의 「역사지리」 세과목 중에 일본사 수험자가 최다이고 지리가 두번째 세계사가 가장 적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생 중에는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거나 또는 배웠다고 해도 잊고 졸업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의 세대가 일본 외부의 역사에 무지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이는 「역사종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대학 수험자의 대부분이 배우고 있는 일본사 교과서에 세계와 동아시아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과연 일본사는 외부와 단절되어 기술되는지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세계의 대표적인 교과서에 입각해 분석해 본다.

1)야마카와출판사 『상설일본 B』 2015 년

이 교과서는 일본에서 가장 팔리고 있는 교과서로 현재 60 %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래 일본인의 역사관에 대한 영향력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 결과를 소개하기 전에 일본사 교과서의 시대구분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원사·고대」 「중세」 「근세」 「근대·현대」 라는 4 분법이다. 교과서라는 점에서 문부과학성이 규정한 『학습지도요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만 학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분법은 오랜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서양에서의 「고대」 「현대」 「중세」 라는 3 분법에 일본의 사정을 감안해 또하나의 시대 구분을 추가한 것이다.

일본사의 「근대·현대」란 서양과의 관계의 긴밀화에 의해 시작된 「근대화」 시대이다. 물리적 시간으로서는 중국에서의 「근대」 「고대」 2 분 법에 있어서의 「근대」와 동일한다. 한편 일본사의 「고대」란 이른바 일본의 「고전문명」이 구축된 시대이다. 3 세기 경 국가의 형성에서 시작되어 8 세기 율령국가의 확립을 정점으로 하는 시대로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에서 당까지,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신라에 걸친 시대에 해당된다.

이 「근대」와 「고대」 사이에는 「중세」와 「근세」의 두 시대가 들어가 있다. 이 둘을 17 세기 초반 도쿠가와 정권의 확립을 전후해 구분하는 것은 학계에 공유되어

있다. 「중세」 후기 전란의 시대가 끝나 재통일되고 이후 평화가 200 년 이상이나 이어진 「근세」 를 맞이했다는 인식이다. 이 교과서에서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기술되고 있다. 단지 학계에 있어서는 「중세」·「근세」를 각각 다른 시대와 관련시키는 경우 반드시 안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근세」 말기에 있어서는 양자를 무가지배 시대로서 연속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서양에서 「봉건제」 개념이 들어왔을 때에도 답습되었다. 이에 대해 1960 년대부터는 미국 학자의 시사에 의해 「근세」를 「중세」와 분리해 「근대」의 전제가 구축된 시대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경제 발전의 눈부신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서양과의 접촉 이전에 이미 「근대화」의 맹아가 있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인기를 끌었다. 이 경향은 후에 한국과 중국에서도 재현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역사 해석에 깊이 몰입하는 일 없이 입장을 초월해 공유되어 있는 4 분법을 기초로 사실에 대한 기술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상설일본사 B』는 일본 외부세계의 양상과 이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부록 표 1·표 2 는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기술한 행수를 대략 계산한 것이다. 시대구분은 이 교과서의 장별 구성에 기초하고 외부 세계의 구성은 크게 세계 전체, 동아시아 (인도를 포함), 서양을 비롯한 동아시아 외의 3 지역으로 구분해 그 기술된 양을 비교해 보았다.

이 교과서에서 일본의 외부에 관계된 기술은 한 페이지당 평균 7.5 행이다. 1 페이지

당 행수가 약 29 행이기 때문에 약 4분의 1을 세계와의 관계 기술에 할당하고 있는 셈이다. 의외로 일본의 외부 세계에 관련된 기술양은 많다. 시대별로 1페이지당 기술양을 개관하면 외부에 대한 기술은 「근대·현대」와 「원시·고대」에 많고 중세에 적다. 의외인 것은 「쇄국」 시대로 간주되어 온 근세를 상당히 상세히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설명한다.

시대별로 어떤 주제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 먼저 「원시·고대」에서는 동아시아 전반과 인도와의 관계가 중국과의 관련과 함께 중시되고 있다. 원시 시대에 관해서는 고고학적 식견에 기초를 둔 유라시아 동단과의 연속성과 이로부터의 괴리, 국가 형성기에 관해서는 중국 사서의 사료로서의 채용, 중국·조선을 통한 불교의 전래, 나아가 중국에의 사절 파견에 의한 율령과 그 외 제도·문물의 수입 등이 주된 테마이다.

일본의 「중세」는 12세기 무가정권이 성립되어 교토의 고대정권과 병립하고 이어 지방에 무가가 활거하게 된 시대이다. 중국에서는 송조에서 원조, 그리고 명조에 걸친 시대,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초기 시대에 해당된다. 이 시대에 관한 외부의 기술은 비교적 적어서 송조와의 무역과 선문화의 수입, 몽골 내습과 이른바 「왜구」 등이 주된 화제이다. 왜구에 관해서는 그 후기 구성원의 주체가 일본인이 아닌 것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이 시대에서는 후에 「일본」에 편입되는 주변부, 류큐왕국의 형성과 에조치·가라후토 등의 민족들에 대한 움직임도 기술되어

있다.

일본 역사상의 「근세」는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 3 인의 패자에 의해 구축된 것이 정설로 교과서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쇄국」의 시대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는 외부의 기술에 1 페이지당 평균 7 행이나 할당하고 있다. 또한 그 참조 지역을 보면 동아시아보다 동아시아 외부 지역이 많다. 그 원인은 표 3 에서 보는 것처럼 근세를 다룬 3 장 중 처음과 마지막 장에 서양과의 관계가 상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16-17 세기의 장에는 크리스찬에 대한 많은 기술이 있고, 19 세기 전반 장에는 서양에 대한 해안 방비 문제와 양학 보급에 많은 행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간인 18 세기 장에는 외부에 관한 기술이 적다. 외교관계가 있던 조선과 한학에 관한 언급을 제외하면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쇄국」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대·현대」에서는 19 세기 중반 서양에 대한 개국과 메이지유신에서 현재까지를 커버하고 있다. 명칭으로는 「근대」와 「현대」 양쪽을 쓰고 있지만 5 개의 장을 그 어느쪽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근대」와 「현대」의 구분이 시대와 함께 변화해 정설이 없다고 집필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제 2 차 대전후의 학계에서는 러시아혁명을 경계선으로 생각하고 이어 대일본제국의 붕괴를 경계로 보았는데 현재는 1960 년대의 고도성장기, 나아가 냉전의 종언을 대체적인 경계선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근대·현대」에 있어서의 일본 외부의 기술은 평균 11 행으로 한 페이지의 38 페센트를 할당하고 있는 계산이 된다. 세계전체·동아시아·동아시아 외에서는 동아시아의 외부가 가장 많다. 흥미 깊은 사실은 장별로 이러한 비중이 다른 점이다. 표 3 을 보면 「근대국가의 성립」 장에서는 세계전체의 기술이 없고 동아시아의 외부가 동아시아를 상회한다. 이것은 근대가 미국에 의한 개국 요구에서 시작되고 또한 메이지 유신에 있어서의 개혁이 주로 서양화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외부에서는 유럽에 대한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것이 흥미롭다. 한편 개별 나라에 대한 언급은 조선과 중국이 가장 많다. 중국에 대한 언급은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을 설명할 때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간 관계로는 조선과의 관계 기술이 최다이다. 이것은 조선과의 국교 갱신부터 한국 병합에 이르기까지 조선과의 관계가 일본 외교의 가장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다음 장은 「두 개의 세계대전과 동아시아」라는 표제가 붙어있다. 표제대로 동아시아와의 관계 기술이 동아시아 외의 1.4 배에 이른다. 개별 나라에서 중국과의 관계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중일전쟁에 이르는 과정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전 장과 비교할 때 세계전체에 대한 기술이 급증한 점이 시선을 끈다. 이것은 제 1 차 세계대전의 베르사이유 강화회의를 시발로 일본이 세계대조약 기구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된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교과서가 대국화에 자긍심을 갖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외부에서는 유럽에 대신해서 미국이 수위로 올라섰다. 이것은 일미전쟁 뿐 아니라 미국이 제 1 차세계 대전후에 세계 정치의 주역이 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의 「점령하의 일본」에서는 미국에 대한 기술이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또한 일본에서 독립한 한국·조선과 중국에 관한 언급은 적다. 점령하에서 양국과의 외교가 존재하지 않았고 조선전쟁에 의한 전쟁특수를 제외하면 경제관계도 빈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고도성장의 시대」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경향이 한국·중국과의 국교회복 기술을 제외하고 이어진다. 그 밖에 흥미 있는 사실은 「세계 전체」에 대한 기술 외에 유럽이 등장하지 않게된 것이다. 마지막 「격동하는 세계와 일본」은 다른 장과 달리 관계 기술보다 지역별 상황 설명이 많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많고 중동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상으로 세계 속의 어느 지역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통사적으로 살펴 보았다. 동아시아에 대한 취급에 관해 다시 정리하면 원사·고대 및 중세에서는 당연하지만 동아시아가 거의 전부이다. 하지만 근세 이후 동아시아의 외부가 등장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기술보다 많아지는 의외의 특징이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내부 구성을 보면 원사·고대에서는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 및 중국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비해 조선에 관한 언급은 동아시아 전체의 개관 설명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대 전체를 보면 의외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분야에 착안해서 외부 세계를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표 4 -a·b 를 보면 원시·고대에서는 문화 이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물·제도 전부를 중국·인도·조선에서 수입한 사실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다. 고대 초기 왕권은 조선반도를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없는 사회였다. 따라서 고고학적 조사 외에 중국왕조의 정사가 사료로서 채용된 점이 특징적이다. 중세에서는 무역이 국가 외교와 별개로 진행된 것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다. 전쟁을 포함한 외교에 대한 기술이 어느 시대에도 많아 특히 근대·현대에서는 약 4 분의 3 에 달하고 있다. 「쇄국」 시대로 간주되어 온 근세에서도 절반이상인 것은 먼저 서술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전쟁 항목을 따로 보면 전체의 5 분의 1 을 차지한다. 그 대부분은 중세의 몽고 내습과 근대·현대의 전쟁으로 원시·고대와 근세에서는 대단히 적다. 일본사가 시대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그 외의 역사교과서: 도쿄서적과 시미즈서원, 이어서 타사 교과서도 비교를 위해 살펴본다. 하나는 현장에서 두번째 점유율을 갖는 도쿄서적의 『신선일본사 B』 2014 년판, 다른 하나는 시미즈서원 『고등학교 일본사 B』 2016 년판이다.

이 양자의 장별 구성은 야마카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것이나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만 상세한 곳의 구성이 다르다. 주목되는 것은

야마카와판에서 함께 다루어진 「근대」와 「현대」를 1945년을 경계로 구별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야마카와판에서도 제국시대와 그 붕괴 후의 시대는 확실히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현재까지의 일본에서는 「전전」과 「전후」라는 시대구분이 중시되어 왔는데 이것이 교과서에도 답습된 것이다. 2016년 시점에서 「전전」과 「전후」는 양쪽 모두 약 70년 남짓의 거의 같은 기간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들 3종 교과서 사이에 외부 세계와 동아시아에 대한 취급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하 야마카와판에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한 「근세」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표 5-a·b·c를 대조해 볼 때 우선 근세 전체에 관해 보면 도교서적의 외부 세계에 대한 언급이 야마카와보다 적고 반대로 시미즈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이 적은 도교서적에서도 1페이지당 6행을 넘는 점에서 야마카와에서 발견한 의외의 경향은 다른 교과서에도 공유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한편 지역 균형을 보면 야마카와판과 도교서적판에서 동아시아 외부에 관한 기술량이 동아시아 내부를 상회하는 것에 대해 시미즈판에서는 반대로 동아시아가 그 외부를 상당히 상회한다. 표 6의 1페이지당 행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지도 요령 하에서도 교과서에 따라 상당히 다른 역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래는 아마도 저자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미즈판의

근세는 주로 중세 말기에서 근세 초기의 국제관계사 전문가인 아라노 야스노리에 의해 쓰여진것으로 생각된다. 아라노는 1980 년대부터 이 분야의 해석 변경에 힘을 기울여 온 가장 유력한 연구자였다. 「전후」에 있어서의 근세 초기 국제관계 연구가 오직 크리스찬을 비롯한 서양과의 관계에 주목해 서양에 대한 「쇄국」을 강조해 온데 대해 그는 오히려 근린 조선·중국·류큐·에조치·동남아시아등과의 관계에 눈을 돌려 크리스찬 추방 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후 「쇄국」을 대신해 「해금」이라는 한자어를 동아시아 공통의 국제관계 문법으로 해서 일본에 관해서도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일본의 학계는 오늘날 마지막 사항은 어떻든 그와 그 공동 연구자가 제창한 근세 일본의 「네개의 입구」라는 해석을 통설로 승인하게 되었다. 시미즈판은 아라노의 해석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근세 초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외부와의 균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마카와와 도쿄서적의 근세 초기에 대한 취급은 「전후」의 미국에 의한 점령기에 형성된 서양의 압도적 존재라는 이미지에 끌려간 것 같아 오늘날 학계의 상식에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미즈판의 국제관계 기술은 국내 기술과의 균형면에서 볼 때 약간 지나칠 지도 모른다. 한편 근세 중기와 후기에 주목하면 3 사의 경향은 비슷하다. 중기에 있어서는 외부에 대한 기술이 줄고 유럽에 관한 언급은 전부 없어진다. 예외는 한학의 보급이다. 이와같은 취급은 역사의 실재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학계의 최신 연구에서 한학의 보급이 후의 메이지유신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점에서 언젠가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8세기말 이후 서양에 대한 기술이 늘고 동아시아가 주는 것은 3사의 공통 경향이다. 이것도 메이지유신과의 관계 특히 유신후의 급격한 서양화가 진행된 사실을 생각하면 타당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지금 「근세」 이외에 관해서는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없지만 통독한 인상으로는 3사의 교과서는 근세와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적이 주로 국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시미즈는 특설기사로 동아시아·홋카이도·만주 이민·오키나와 등의 「지역사」를 「여성의 사회사」와 병행해 두고 있어 야마카와 이상으로 외부와 외부와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사의 연구 동향

일본의 고교용 역사교과서는 주로 대학 교원들에 의해 집필된다. 중등교육 교과서에 아카데미즘 멤버가 관여하지 않는 중국이나 중등교육 교원이 깊이 관여하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또한 교과서 집필자와 정부와의 관계도 양국과는 다르다. 학습지도 요령이라는 큰 범위는 지켜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시미즈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자유도가 있다.

이것은 교과서의 내용이 학계에서의 연구동향 등과 밀접한 관계인것을 의미한다. 국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대한 기술이 상당한 비중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마카와의 서문에는 다음과 문장이 있다. 「일본사는 우리들이 사는 일본열도 안에서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더듬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 속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본사를 배울 경우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주변국들을 비롯한 각지역의 역사와 일본과 여러 외국과의 관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일본사를 세계, 특히 근린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하는것은 최근 수십년간의 일본사 학계의 유행이었다. 단지 고대사의 경우 이것은 예로부터의 전통이었다. 율령의 수입이 고대국가의 골격을 만들고 또한 당령이 일본 율령의 주석서에서 복원된 사실에서 이는 분명하다. 그러나 중세와 근세에 있어서 이것을 시작한것은 필자와 동세대의 학자로 앞에 언급한 아라이 야스노리와 무라이 쇼스케 등이다. 무라이는 중세 후기의 전문가로 이른바 「왜구」가 일본·조선·명 등의 국가에 걸친 해민집단이었던 것을 밝혀내고 당시의 동아시아에는 근대와 같은 국가분위와 다른 질서 원리가 있었던 사실도 제시했다. 또한 19 세기 말 일본사 전문가인 필자는 근세에서 19 세기말 동아시아 전체를 다룬 대학 차원의 교과서 『어른을 위한 근현대사 19 세기편』(도쿄대학출판회, 2009 년)을 편집했다. 일본·조선·청조·류큐의 전통사회가 러시아·영국·미국의 등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그 상호관계의 추이 과정을 언급한 책으로 종래의 근대사에 있어서 국제관계 기술이 일본 내부의 시점만으로 쓰여진 것에 대해 조선과 중국등 외부로부터 본 시점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한 것이 새로운 점이다.

이와같이 과거 수십년간 일본사학계에서는 이른바 「동아시아의 발견」이라고 할 만한 유행이 발생해 이것은 종래의 「고립된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소멸시켜 갔다. 이것이 고등학교 레벨의 일본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 방면 연구가 충분하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 특히 근대에 관해서는 제국시대의 일본령·식민지,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를 비롯한 경계영역과 이들 사이를 이동한 사람들의 실증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필자의 다음세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령 시오데 히로유키 『월경자의 정치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일본인 이민과 식민』 나고야대학출판회, 2015 년 등). 이러한 것들의 축적에 의해 언젠가 보다 넓은 시야에 입각한 일본통사도 가능해질 것이다.

맺음말

현재 일본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그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점에서 기로에 서있다. 학계에 있어서의 중세와 근세연구는 근대의 역사와 달리 유행이 수그러드는 것 처럼 보인다. 한편 최근에 발생한 이웃나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동아시아 안에서 일본을 정립한다는 연구 동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젊은세대가 「내향적」이 되어 국내와 서양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갖도록 퇴행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의 세계에서는 고등학교 신설과목 「역사종합」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중요하다.

문부과학성은 다음세대가 글로벌화 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현대에 집중해 일본사와 세계사의 융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과목을 설계하고 있지만 여기에 학계와 교육계가 협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글로벌화라 해도 동아시아와 구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분명하지 않다. 내외에서 닥치는 정치 압력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韓國語訳：金範洙)